

# “北 2차 포격때 왜 전투기 폭격 안했나”

# 자주포 vs 미사일

### 한반도 화약고 서해 5도 화력 남한, 북에 비해 크게 떨어져

##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부실 대응 질타

## 김국방 “북포탄 확인 안돼 80발만 응사” 李대통령 “확전 자제” 언급 여부도 논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우리 군의 부실 대응 여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자제’ 언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일단 국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군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국방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1차 포격 당시 K-9 자주포로 대응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북한의 2차 포격 당시에는 전투기에 의해 포격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전쟁이 났을 때 저쪽 포사격이 끝났을 때 대응 사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1, 2차 포격 이후 13분~15분이 지나서야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이뤄진 점을 추궁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1차 포격 때 기습을 당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2차 포격 당시에는 전투기로 공격을 하든지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왜 북한은 170발을 사격했는데, 우리는 2~3배로 대응한다는 교전 규칙이 있는데도 80발밖에 쏘지 못했느냐”고 따졌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민

간인 포격을 예상 못했다면 대한민국 대대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대응 사격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쉽게 생각해서 스타크래프트처럼 (적쪽이) 쏘면 우리도 바로 사격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전투기 폭격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군력을 동원하는 것은 과도한 전쟁 확대라는 차원에서 (우선 순위를) 뒤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80발만 대응사격했는 데 대해서는 “민간에 떨어지는 포탄이 확인이 안 돼 당시 2배라고 생각해 80발을 쏜 것이다. 현장 지휘관이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대통령이 “단호히 대응하되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송영선 의원은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양치기 소년 밖에 더더구나”고 말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왜 북한은 170발을 사격했는데, 우리는 2~3배로 대응한다는 교전 규칙이 있는데도 80발밖에 쏘지 못했느냐”고 따졌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민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단호한 대응과 확산자제는 반대되는 지시”라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대통령의 지적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오전에는 “단호하지만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가 오후에는 “확전 방지라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송영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전 방지’ 발언에 대해 “결단코 이 대통령이 직접한 말이 아니다”라며 “회의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참모들의 발언에서 그런 말이 아끼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북을 끌어안지도 못하고 확산을 얘기하면서도 응징하지도 못하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했다”며 “이번 사태는 안전한 당시의 재판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차체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 포탄 공격 하루 뒤인 24일 해양경찰특공대원들이 연평도에서 육지로 피신기 위해 선착장에 나온 주민들을 해경 경비함정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데프콘’ 아닌 ‘진돗개’ 발령한 이유는?

### 군 “한미 정상 합의 필요...국지도발로 판단”

북한이 지난 23일 오후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포격을 가했는데 대북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을 격상하지 않고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북한이 전시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무력도발을 감행했는데 주로 대간첩 작전에 적용되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데프콘을 격상하려면 최고 군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새벽 시간인데다 특정 도사에 국한된 도발이어서 먼저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포격이 있었다면 영항이 연쇄적으로 미치지 때문에 바로 데프콘 격상 절차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의 도발에 대한 ‘방어준비태세’로 5단계로 구성된 데프콘은 평소 경계강화 상태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3단계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며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이 단계부터 작전권이 연합사로 넘어간다. 2단계가 되면 탄약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부대 관제인원이 100% 충원되며 1단계에선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아직 데프콘이 공식적으로 격상된 적은 없지만 1999년 6월 서해교전 당시 4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방어준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졌도.

또 한·미가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에 대응해 ‘연합위기관리’를 선포함에 따라 ‘데프콘’을 3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송영선 의원 “北 열압력탄 시험 사용”

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열압력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두 번째 발사가 실수로 민간 쪽에 갔다고는 절대 보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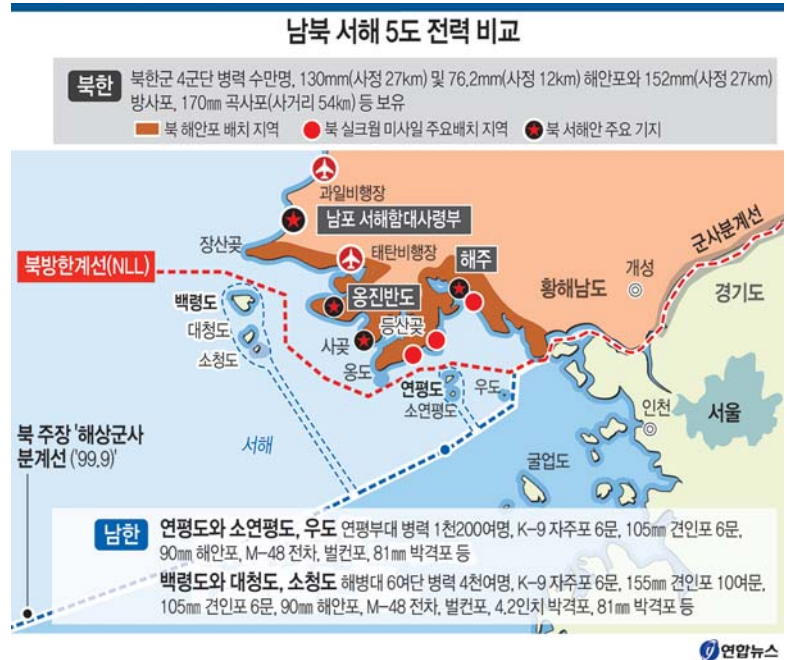
송 의원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썼고 미국이 아프간과 이란 전쟁에서 동굴에 사용해 큰 성공을 거둔 무기가 열압력탄”이라면서 “북한이 심심할 때마다 불바다를 만든다고 경고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를 테스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간인 주택가에서 화재 피해가 심각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일

반 야포는 한번 쏘면 한 번의 폭발로 끝이 나지만 열압력탄은 처음에는 적에게 폭발하고 두 번째는 분사되는 화약에 의해 크게 불이 난다. 어제 화면을 보니 열압력탄을 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는 확인이 안 됐다”며 “화면만 가지고 (판단)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열압력탄(Thermobaric) = 기화 폭발으로도 불리는 장사정 야포용 무기 중 하나. 발사 후 1차 폭발을 통해 폭발체를 지면에 스며들게 한 뒤, 2차 폭발을 통해 강력한 열 압력을 발생시킨다.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성일로점(법률공인) 성일로 입구: 022276-057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 시인회관) 030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0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방2001)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오산점(공민중앙 2층)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032039-4400 부산 시면점(시면로터리) 051818-8800 서면점(서면역)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안로터리)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60 전주점(구 동명국장) 055745-9870 창원점(한양병원)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053425-4440 상덕점(상덕네거리) 053426-1511 남양주점(아라리대교) 05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로터리) 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고속터미널) 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 도동) 062225-5110 광주점(백동광장) 062861-4477 전남 순천점(순천사거리) 차재성기념 구: 061752-8845 전북 전주점(안동로터리) 063022-5728 군산점(구 시청) 063446-0198 익산점(백사동사거리) 063638-5900 남원점(사당네거리) 063632-2826 대전 대전점(도청)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터리)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041653-2888 광주점(광주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천안로터리) 043222-1177-8 충북 청주점(삼천로터리) 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산2가) 033641-0588 춘천점(철도광장) 033625-5110 제주 제주점(영등포로) 064753-435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인증 GMP 제조업체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인증 국제인원기량 인증 유방광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